

스트레스 및 알콜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도시 빈곤가구를 중심으로 -

Social Stress, Alcohol and Wife Abuse in Urban Poor Families*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김재엽

Yonsei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Assistant Prof. : Kim, Jae-Yop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Although there is a little concern about wife beating, the problem is in very serious level. Especially many community workers in urban poor areas reported that they often witnessed wife abuse cases and most battered women have no place to ask help.

However, there is not many systematic analysis on wife abuse in those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1)to more accurately estimate the incidence of wife abuse in poor families; (2)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of socio economic status, stress and alcohol consumption on wife abuse.

The results show that almost 1 out of 3 husbands in urban poor areas carried out 1 or more physical violence acts against their wives during the last year and that social stress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wife abuse in the urban poor families.

I. 서론

어느 사회, 계층에서나 가족은 인간이 만든 가장 기초적인 집합 단위이며 성원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매개조직이다. 모든 사

람들은 가족이라는 집단에 속하면서 그 안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현대 산업사회는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가족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핵가족화된 가정은 여전히 가족성원들에게 물질적·정서

* 본 연구는 1996년도 연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 지원금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적 안정을 제공하지만 갈등과 위기도 경험하게 된다.

다양한 계층의 가족 중에서 보다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집단은 빈곤한 계층의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가정은 일반 중산층 이상 가정에 비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가족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정서적 곤란을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가족기능 중 많은 부분이 사회로 이전되었다고는 해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가족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빈곤가정에서는 높은 스트레스와 알콜 중독, 가정폭력, 가족해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빈곤가정의 모든 가족성원들이 이러한 문제의 피해자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이다.

빈곤가구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본 연구의 주관심은 가족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인 아내구타이다. 기존의 많은 국외 선행연구들에서는 빈곤가정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내구타에 있어서 구타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Straus & Gelles, 1990). 우리사회에서도 빈곤가정에서 아내구타로 인한 여성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빈곤가정의 아내구타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그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계층에서의 아내구타의 실태 및 원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에서 빈곤가정에 보다 적절한 아내구타 예방 및 치료 개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내구타의 원인을 알콜과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요인들의 두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아내구타의 문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빈곤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내구타에 대한 요인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내구타의 개념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또는 잠재적 의도성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 내에서 그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할 때 이것을 '가정 폭력'이라 한다. 가정 폭력은 다른 폭력 유형과는 다르게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교육과 훈계의 도구 혹은 갈등 해결의 한 방법으로 합법화되어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가정 폭력은 폭력 행위의 대상에 따라 부부 폭력과 부모 폭력, 자녀 폭력, 형제간의 폭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부부 폭력은 부부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 행위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부부 폭력 중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을 '아내구타'로 정의하기로 한다.

2. 빈곤가정의 아내구타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은 도시 저소득층 빈곤가정을 의미한다. 빈곤가정은 교육수준이 낮고, 월평균 수입이 낮고, 비숙련 또는 저급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불안한 직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경제적 정서적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해 더 많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노출되어 있다. 빈곤가정은 이처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선행연구들은 빈곤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아내구타에 있어서 심각성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 National Commission(1968)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아내구타는 특별한 계층이나 인종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나 빈곤계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Dibble and Straus(1980)의 연구에서도 고소득층의

남성보다 저소득층의 남성들이 배우자 폭력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Ulbrich and Huber(1981)의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수입범주에 있는 집단이 가장 높은 수입범주에 있는 집단보다 아내구타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내구타에 대한 관심이 1980년대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래 현재까지 아내구타 실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중 대표적 연구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시 결혼한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아내구타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생활을 통하여 남편의 폭력을 1번 이상 경험한 여성은 45.8%, 아내에게 1번 이상 폭력을 행사한 남성은 50.5%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또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5%가(한국갤럽, 1989), 1992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는 61.0%가 각각 아내를 구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정내에서 아내에 대한 구타가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김재엽(1997)의 전국 가정폭력실태에 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27.9%의 남편이 아내에게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 이외에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한 실증적인 실태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아내구타 이론

현재까지 가정내 아내구타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이 전개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아내구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을 차례로 고찰하기로 한다.

1) 정신병리 이론

정신병리이론은 아내구타자를 기질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정신이상자로 간주한다. 이 이론에서는 알콜중독이나 약물남용 혹은 정신병리와 같이 개인적인 기질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가정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구타의 원인이 개인이 가진 개별적 원인에 의해 나타

난다는 관점에서 아내구타를 설명하고 있다. 정신병리이론에 의하면 알콜이나 약물에 보다 취약한 남편이 아내에 대한 폭력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Kantor, 1992).

특히 아내구타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내구타와 남편의 알콜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Fojtik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101명의 여성에 대한 면접조사에서 남편의 약 60%가 알콜중독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경험한 폭력의 2/3가 알콜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Fojtik, 1978). Rosenbaum과 O'Leary(1981)는 신체적 학대부부와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는 행복한 부부, 폭력 등 가족 역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부부 등 3개 집단에서 나타나는 부부사이의 차이점을 조사한 결과,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남성들의 알콜중독점수(MAST Score)가 다른 두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두 집단은 음주점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elles는 알콜이 아내구타에 절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내구타자들은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남편이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음주의 탓으로 변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고 주장하였다. Kantor와 Straus(1992)의 연구에 의하면 알콜사용과 아내구타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음주지수(drinking index)로 금주자에서부터 심한 음주자까지 6단계로 범주를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응답자의 평상시 음주 정도와 배우자폭력비율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 스트레스 이론

스트레스이론에서는 아내구타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스트레스를 많이 인지할 때 아내구타로 많이 전환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즉 생활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내구타에 관한 경험적인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중점을 두어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가족내에서 폭력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다(김정옥, 1995; Farrington, 1980; Gelles, 1980; Parke and

Collmer, 1975; Straus, 1980, 1990).

전미 가정폭력조사에 따르면(Straus and Gelles, 1990), 사회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가정보다 훨씬 더 높은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편이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아내구타율이 높고, 부정적인 생활사건 특히 전통적인 남성의 지배적인 위치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배우자학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Gelles, 1989; Steinmetz, 1977).

또한 1993년도 한국인가정폭력 조사에서 한국인 가정 중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경제/직업에 연관된 스트레스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 중 38.5%가 1년 동안 배우자 폭력을 경험하였고,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 중에는 8%만이 배우자 폭력을 경험하였다. 특히, 심한 아내구타의 경우 대부분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가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반대로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가정에서는 한 건의 심한 구타도 없었다(김재엽, 1997).

이러한 결과는 사회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이 가정폭력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말해준다.

3) 자원이론

자원이론에 의하면 가족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에 따라 가족관계내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Blood and Wolfe, 1960). Goode는 폭력을 금권이나 개인의 속성과 같이 자원이라고 일컬으며 이러한 자원은 원치않는 행동을 그만 두게 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하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폭력을 다른 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식되거나 바람직한 반응을 얻는데 실패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궁극적 자원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원이론에 의하면 폭력의 사용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가장 명백하고 효과적인 사회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4)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아내구타를 설명하는데 비용-이득(cost-benefit)의 분석을 적용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할 때는 폭력을 통해 얻는 보상보다 폭력을 사용하므로써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재제나 불이익과 같은 비용이 적을 때 그들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Gelles, 1983).

5)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가들은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서 공격이 일어나고 학습된다고 주장한다(O'Leary, 1988). 가정폭력의 세대간의 전이는 사회학습의 관점내에서 가장 관심을 끌어왔으며,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거나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이 폭력적인 부부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다(Pagelow, 1981; Straus, 1980)는 것이다.

6) 여권론적 이론

여권론적 이론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어 남성은 항상 여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테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본다. 특히 여권론에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서 남성들은 남성다움의 표출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사회화되어졌다(Walby, 1990).

7) 하위문화 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내 구타와의 관계

하위문화이론은 주류문화(main culture)와 분리된 주변문화(sub culture)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서 주변문화에서는 주류사회에서의 비폭력적인 생활과 접촉되지 못하고 하나의 하위 문화로서 의사소통이나 대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아내구타는 중상층이나 상류층에서 보다 하위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하위문화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내구타와의 관계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령

가정 폭력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부 폭력과 부부의 연령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Suitor와 Pillemer(1987)는 1975년과 1985년 전미 가정폭력조사에서 연령과 부부 폭력 사이에 반비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젊은 연령 집단이 중년이나 노년 집단에 비해 폭력이 높음을 보고하였고, 특히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부부 상호간의 폭력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김재엽은 한국 남성노인의 아내구타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에 있어서 연령은 아내구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김재엽, 1998).

(2) 학력

학력 수준에 따라 가정 폭력은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연구에 따라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보다 폭력을 많이 행사한다는 경향과 이와 상반되게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보다 폭력을 많이 행사한다는 연구 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Steinmetz(1977)와 Gelles(1979)는 남편의 학력 수준과 폭력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Homung (1981)과 Kim(1993)은 남성의 학력 수준과 폭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학력 수준과 부부 폭력 사이에는 일관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3) 직업

직업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보다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5년 전미 가정폭력 조사에 의하면 실업 상태 혹은 시간제 고용상태에 있는 남성이 완전 고용에 있는 남성보다 폭력이 심하였고, 생산직(Blue-color) 노동자들이 사무직(White-color) 노동자들보다 2배 이상 높은 폭력을 보였다(Straus, 1990).

(4) 소득수준

소득과 부부 폭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부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와 소득과는 상관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Dibble & Straus(1990)는 저소득층 남편들은 다른 자원이 부족하므로 아내를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김재엽(1997)은 부부 폭력과 소득 수준과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 부부폭력 문제가 저소득층에만 심각하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아내구타 이론 중 본 연구의 주된 주제인 알콜과 스트레스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아내구타의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도시민공층이므로 하위문화 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내구타와의 관련이론을 주된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아내구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빈곤가구의 아내구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내구타의 주요한 요인으로 예상되는 스트레스, 알콜 변인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빈곤가구의 아내구타 발생률은 어떠한가?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수준)은 아내구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3) 스트레스는 아내구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4) 알콜은 아내구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5) 빈곤가구의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

1) 아내구타 척도

부부폭력행위는 CTS(Conflict Tactics Scale)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TS는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가

족의 폭력 또는 구타를 측정하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부부갈등관리를 위해 표현되는 행동들을 3가지 수준 즉, 이성적 행동(reasoning-3분항),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6분항), 폭력적 행동(violence-9분항)으로 나누어 총 18분항을 6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CTS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기존의 CTS 18분항을 이성적 행동 및 언어적 공격 항목을 줄이고, 폭력 행동 중 총이나 칼로 위협하거나 사용한 경험을 질문하는 2분항을 통합하여 이성적 행동(1분항), 언어적 공격(2분항), 폭력적 행동(8분항)을 질문하도록 총 11분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11분항 중 폭력적 행동에 해당하는 8분항 중 상대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하지 않는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차다' 분항을 제외한 7분항을 Straus와 Gelles의 분류에 따라서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경미한 폭력은 ① 상대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 ② 세계 밟았다 ③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의 3분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심각한 폭력은 ①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②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③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④ 칼(가위)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의 4분항으로 측정하였다.

2) 스트레스 척도

1967년 Homes와 Rahe는 질병발생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의 특성 및 빈도를 환자의 생활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관찰 수집하여 43개 생활사건 항목으로 구성된 최근 생활경험표(S.R.E. Schedule of Recent Life Experience)를 고안하여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1967년 Homes와 Rahe의 가정내 스트레스 척도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도록 수정·발전시킨 6개 범주 11분항으로 측정하였다.

(1) 직업적 스트레스

- ① (직장을 가진 경우)직장상사와 문제가 있

었습니까?

- ② 직장에서나 집에서 할 일이 크게 늘어났습니까?

(2) 경제적 스트레스

- ③ 강제퇴직이나 다른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셨습니까?

- ④ 경제적인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습니까?

(3) 건강 스트레스

- ⑤ 가족 중 누가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였습니까?

- ⑥ 가까운 사람 중 사망했거나 가족 중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4) 배우자 스트레스

- ⑦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 ⑧ 배우자와 싸움이 부쩍 늘어났습니까?

(5) 부모로서의 스트레스

- ⑨ 자녀들과 갈등이 심해졌습니까?

- ⑩ 자녀의 학교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6) 대인간 스트레스

- ⑪ 분가 또는 처가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3) 알콜 척도

알콜은 Straus의 AAM(Alcohol Abuse Measure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음주빈도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가를 질문하였고, 음주량은 평상시 술을 마실 때 보통 어느 정도 마시는가를 질문하였다. 이 둘 두가지 질문을 통해 얻어진 음주빈도와 양을 사용하여 음주유형을 다음과 같이 1)금주 2)적게 마심 3)많이 마심 4)중독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 (1) 금주 :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음

- (2) 적게 마심 : 한달에 1회 이하부터 거의 매일 까지, 한번에 2잔 이하 마심

- (3) 많이 마심 : 한달에 1회 이하부터 거의 매일

까지, 한번에 3-4잔 마심

- (4) 중 독 : 한달에 1회 이하부터 거의 매일까지,
한번에 5잔 이상 마심

3. 조사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빈곤가구의 남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빈곤가구나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대상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서울시로 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밀집 거주지역은 노원구이다. 1998년 현재 노원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21,152명으로 서울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수의 2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노원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5개 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대상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연명부를 확보한 후 연명부 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이들 가구에 대하여 단순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총 171명의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충실하지 않아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 21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 수는 150명이었다.

4. 조사방법

조사는 1997년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원들이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원은 각 해당지역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18명으로 하였다. 조사원을 해당지역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은 빈곤가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에 대한 거부율이 높고, 조사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조사원들에게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먼저 실시하였고, 이들 조사원이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대상자에게 방문하여 면접

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빈곤가구를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밀집거주지역인 노원구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 나라 사회 모든 빈곤가구에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내구타는 가정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므로 은밀한 성격을 띠고 있고, 당사자들이 외부로 노출하기를 꺼리므로 실제 사실보다 축소해서 응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측정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응답자의 지난 1년 동안 갈등행위와 문제에 대한 회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억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빈곤가구의 남편이며, 이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다음 <표 1>에 나타나 있다.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는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연령분포는 40대가 40.7%로 가장 많고, 50대가 29.3%를 차지하여 대다수(70.0%)가 40-50대의 중장년층이고, 60세가 넘는 대상자도 20.7%에 달했다. 이같이 대상자가 고연령층인 것은 조사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반가구에 비해 자활능력이 있는 젊은층이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졸 이하가 총 70%에 달해 비교적 낮은 교육수준을 나타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빈곤가구의 남성 중 53.3%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46.7%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변인	구분	빈곤가구(n=150)	
		빈도	백분율
연령	20세-29세	1	0.7
	30세-39세	13	8.7
	40세-49세	61	40.7
	50세-59세	44	29.3
	60세 이상	31	20.7
	계	150	100.0
교육수준	초등졸	55	36.7
	중졸	50	33.3
	고졸이상	45	30.0
	계	150	100.0
직업유무	유	70	46.7
	무	80	53.3
	계	150	100.0
소득수준	10만원 미만	44	29.3
	10만원-30만원 미만	33	22.0
	30만원-50만원 미만	32	21.3
	50만원-70만원 미만	25	16.7
	70만원-90만원 미만	13	8.7
	90만원 이상	3	2.0
	계	150	100.0

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특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취로사업으로 생활을 영위할 경우 무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 조사대상자의 직업상태는 매우 불안

정하다고 할 수 있다.

월소득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듯 50만원 미만이 전체 72.6%에 달하는 1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만원 미만의 소득자도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아내구타 실태

빈곤가구의 부부폭력 중 아내구타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력행위이다. 이러한 아내구타는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심각한 신체적 손상 및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표 2〉는 폭력유형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내구타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내구타의 대부분은 경미한 폭력-아내에게 물건 던지기, 세계 밀치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기-이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지난 1년간 적어도 1번 이상 구타를 한 남편은 조사대상자 150명중 34%에 달하는 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구에서 3명당 1명의 비율로 어떤 형태로든 아내를 구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각한 폭력-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물건(혁명,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리기,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기 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 조사대상자 8명 당 한명 꼴

〈표 2〉 아내구타 발생률

폭력 유형	구 타 발 생 률	
	사례수	발생률(%)
경미한 폭력	51	34.0
1. 아내에게 물건 던지기	51	34.0
2. 세계 밀치기	37	24.7
3. 아내 뺨 때리기	19	12.7
심각한 폭력	17	12.7
1.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17	11.3
2. 물건(혁명,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리기	7	4.7
3. 사정없이 마구 때리기	6	4.0
4. 칼이나 총기로 위협 또는 다치게 하기	5	3.3

〈표 3-1〉 스트레스 유형별 스트레스 실태

스트레스 유형	해 당 항 목	남성(n=150)
직업적 스트레스	① 직장상사와 문제	39.4
경제적 스트레스	② 근무량 증가	72.7
건강 스트레스	③ 해고나 실직	66.7
배우자 스트레스	④ 경제적 형편 하향	41.3
부모로서의 스트레스	⑤ 임신이나 출산	27.3
대인간 스트레스	⑥ 사망이나 가족의 건강문제	23.3
	⑦ 성적인 어려움	
	⑧ 배우자와 다툼 증가	
	⑨ 자녀와 갈등 심화	
	⑩ 자녀 학교성적 하락	
	⑪ 시댁/친정과 갈등	

에 해당하는 1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율은 실제보다 낮은 가능성이 높다. Straus와 Gelles(1990)는 폭력행사자들이 자신의 폭력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폭력을 보고한 비율은 최소한의 비율이며, 이 경우 실제 폭력률은 최소 2배 이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사회의 빈곤가구에서 실제 발생하는 아내구타는 본 연구결과 나타난 34%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표 3-1〉은 조사대상자인 빈곤가구의 남성들이 1년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 발생률을 스트레스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빈곤가구 남성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해고나 실직, 경제적 형편의 하향

과 같은 경제적 스트레스로서 72.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가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배우자 스트레스가 41.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구의 대부분의 남성이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요인수별 스트레스 실태를 살펴 보았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3.12개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의 알콜 실태

빈곤가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64.5%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음주유형을 1)금주 2)적게 마심 3)많이 마심 4)중독의 네가지 유형을 나눈 음주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표 3-2〉 스트레스 요인수별 스트레스 실태

스트레스 요인 수	스트레스 발생률	
	사례수(n=150)	발생률(%)
0 개	9	6.0
1 개	20	13.3
2 개	31	20.7
3 개	31	20.7
4 개	29	19.3
5 개	16	10.7
6 개	5	3.3
7 개	5	3.3
8 개	4	2.7

m=3.120 sd=1.846

〈표 4〉 음주유형별 실태

음주 유형	음주 발생률	
	사례수(n=138)	발생률(%)
금 주	49	35.5
적게 마심	12	8.7
많이 마심	39	28.3
중 독	38	27.5

빈곤가구의 음주형태에 있어서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적게 마시는 경우가 8.7%에 불과하고, 과음이나 중독에 이르는 비율이 무려 55.8%를 차지하고

있어 2명 중 1명의 꼴로 과음을 하거나 알콜중독에 이를 만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가구의 남성에게 있어서 음주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려가고, 직업도 부직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알콜 소비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알콜 소비량이 높으며, 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5.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다중공선성 여부의 진단과 변수간 관계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그다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는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가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교육수준은 내

6. 사회인구학적인 변수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인 변수가 각각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과 만약 이러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이 함께 작용하면 아내구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곤가구 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소득을 투입하고 <표 6>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연 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소 득	알콜소비량	스트레스
연 령	1,000					
교육수준	-.253**	1,000				
직업유무	-.392**	.060	1,000			
소 득	.045	.016	.009	1,000		
알콜소비량	-.423**	.083	-.277**	-.003	1,000	
스트레스	-.023	.068	-.235**	.080	-.054	1,000

** P < .01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Goodness of Fit		143,354			
Model Chi-Square		18,504	df	Significance	
Improvement		18,504	5	.0024**	
독 립 변수	방정식에서의 변수들				
	Exp(B)	B	S.E.	Sig.	
연 령	.9523	-.0489	.0223	.0280*	
교 육 수 준	-	-	-	.0266*	
1. 초등학교 졸업(reference)	1,0000	-	-	-	
2. 중학교 졸업	2,0083	.0373	.2642	.0083**	
3. 고 졸 이 상	.6091	-.4958	.2792	.0759	
직 업 유 무	.4552	-.7870	.4176	.0595	
소 득	.9810	-.0192	.0111	.0850	

*P < .05, **P < .0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Model Chi-Square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p < 0.01$) 이 모형은 아내구타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과 교육수준이 아내구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중학교를 졸업한 이하로 저학력인 경우 아내구타가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7.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은 연령과 교육수준, 직업 유무, 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외에 스트레스 변인이 아내구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인구학적인 변수 중 교육수준과 소득이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중졸이하로 낮은 경우와 소득이 적을수록 보다 아내구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스

트레스는 아내구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빈곤가구의 남편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내구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빈곤가구가 아닌 일반가구에서도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김재엽(1997)의 한국인의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일반 가구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남편이 가장 높은 아내구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가구 및 빈곤 가구에서 스트레스는 공통적으로 아내구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델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Model Chi-Square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p < 0.001$), 스트레스 변인을 포함한 이 모형은 아내구타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스트레스가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스트레스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내구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업, 경제, 건강, 배우자, 자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6가지 유형 중 직업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표 7>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Goodness of Fit		140,170		
Model Chi-Square		Chi-Square	df	Significance
Improvement		34,701	6	.0000***
		34,701	6	.0000***

독립 변수	방정식에서의 변수들			
	Exp(B)	B	S.E.	Sig.
연령	.9557	-.0454	.0239	.0579
교육수준	-	-	-	.0253*
1. 초등학교 졸업(reference)	1.000	-	-	-
2. 중학교 졸업	2.5830	.9490	.4941	.0548
3. 고졸이상	.6980	-.3596	.5131	.4835
직업유무	.6914	-.3691	.4499	.4120
소득	.9758	-.0245	.0122	.0442*
스트레스	1.5511	.4390	.1173	.0002***

* $P < .05$, *** $P < .001$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그외 다른 유형의 스트레스는 아내구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구에서 남편이 직업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아내구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가구에서 아내구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직장스트레스를 경감,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8. 알콜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알콜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에서와 같이 알콜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아내구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집단과 중독성에 가까운 집단 간의 아내구타 발생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정도가 심할수록 아내를 더 자주 혹은 더 심하게 구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쉼터나 shelter에 오는 아내구타 피해자의 50% 이상의 경우는 남편의 알콜과 아내구타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한 보고되지 않은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연구에 있어서는 알콜이 아내구타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Straus의 전미 가정폭력조사와도 비슷한 연구결과이다.

이 모형에서는 직업의 유부만이 아내구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분석모형에서 알콜소비량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아내구타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직업유부는 직업상실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높은 것 같으며 이로 인해 아내구타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는 <표 9>에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여러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8> 알콜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Goodness of Fit		131.113			
Model Chi-Square		Chi-Square	df	Significance	
Improvement		18.273	8	.0193*	
		18.273	8	.0193*	
독립 변수		방정식에서의 변수들			
		Exp(B)	B	S.E.	Sig.
연령		.9587	-.0422	.0251	.0029
교육 수준			-	-	.0630
	1. 초등학교 졸업(reference)	1.000	-	-	-
	2. 중학교 졸업	2.5456	.9344	.4803	.0562
	3. 고졸 이상	.9230	-.0770	.5089	.8798
직업 유무		.4005	-.8029	.4454	.0450*
소독		.9838	-.0164	.0113	.1480
알콜 소비량		-	-	-	.3022
	1. 금주(reference)	1.000	-	-	-
	2. 적게 마심	1.9119	.6481	.7500	.3825
	3. 많이 마심	2.1523	.7665	.5315	.1493
	4. 중독	1.0760	.0372	.5441	.8929

*P < .05

9. 아내구타에 각 변인이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및 알콜을 모두 고려할 경우 각 변인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9>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Model Chi-Square 값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p < 0.001$), 스트레스와 알콜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한 이 모형은 앞서 언급한 어느 모형보다 아내구타 원인을 설명하는데 보다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스트레스가 유일하게 아내구타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이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구타가 보다 빈번하게 자주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요인 이외의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알콜은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음주량이 많을수록 아내구타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분석한 표들과 <표 9>를 비교하면 수입이 얼마인가 또는 직업이 있는가 보다는 이러한 상황들을 스트레스적인 환경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아내에게 더 폭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구의 아내구타에 있어 보다 스트레스 요인에 주목하고, 아내구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빈곤가구의 남편에 대하여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정책적 그리고 임상적 개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아내구타는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사회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학대적 행동이 여전히 가정의 영역 속에 제한된 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표 9> 아내구타에 각 변인이 미치는 영향 분석

Goodness of Fit		131.761		
		Chi-Square	df	Significance
Model Chi-Square		32.552	9	.0002***
Improvement		32.552	9	.0002***

독립변수	방정식에서의 변수들			
	Exp(B)	B	S.E.	Sig.
연령	.9694	-.0311	.0265	.2409
교육수준	-	-	-	.0929
1. 초등학교 졸업(reference)	1.000	-	-	-
2. 중학교 졸업	2.7728	1.0198	.5249	.0520
3. 고졸 이상	.9713	-.0291	.5392	.9569
직업유무	.6583	-.4180	.4846	.3884
소득	.9816	-.0186	.0123	.1297
스트레스	1.5709	.4517	.1289	.0005***
알콜소비량	-	-	-	.8132
1. 금주(reference)	1.000	-	-	-
2. 적게마심	1.3180	.2761	.8160	.7351
3. 많이마심	1.7386	.5531	.5728	.3343
4. 중독	1.2641	.2344	.5739	.6830

*P < .001

않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빈곤가구에서는 높은 스트레스와 음주율을 경험하고 있으며, 아내구타는 매우 심각한 수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배우자 폭력에 대한 지식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빈곤가구에서 일어나는 아내구타의 발생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스트레스와 알콜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먼저, 빈곤가구에서 아내구타의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가구의 남편 3명 중 1명 즉 34%가 지난 한 해 동안 적어도 1회 이상의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각한 폭력의 경우는 빈곤가구의 아내 100명 중 12명 이상이 지난 한 해 동안 남편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1975년도 1985년도 전미 가정폭력 조사에 나타난 일반 가정의 아내 구타 발생률 각각 12%, 11%의 약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러한 산술적 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빈곤가구의 아내구타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traus와 Gelles(1990)가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의 행사자들이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있어서의 비율과 추정치를 '최소한의 추정치'로서 간주해야 한다면 그 심각성은 더욱 높다.
2.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빈곤가구의 남성의 아내구타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이 아내구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아내구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인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내를 자주 구타할 것이라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유무나 소득수준은 아내구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와 아내구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스트레스는 아내구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즉, 빈곤가구에서 남편이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보다 빈번히 그리고 많이 아내를 구타하였다. 결과적으로 빈곤가구에서 남편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가정폭력의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알콜과 아내구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알콜은 아내구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집단과 중독성에 가까운 집단 간의 아내구타 발생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정도가 심할수록 아내를 더 자주 혹은 더 심하게 구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배치되는 결과이다.
5. 빈곤가구의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스트레스 및 알콜의 각 변인을 종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내구타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은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즉, 이 모형에서는 스트레스 이외 다른 변인들은 아내구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빈곤가구에 있어서의 아내구타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구의 아내구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빈곤가구 남편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사회적 개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구타 가해자에게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스트레스 관리는 우선 가해자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주고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사회적 원인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해자에게 bio-feedback 기술, 긴장완화훈련과 같은 행동적 개입을 통해 스트레스가 몸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게 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오게하는 신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도록 교육하여 스트레스를 사전에 방지·조절하는 자기통제의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가해자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없을 경우 그

반응으로서 구타하는 행동을 하므로, 사전 신호를 인식하게 하고, 긴장완화훈련을 가르침으로써 구타하는 행동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가해자로 구성된 자조집단(self-help group)에서 'time-out', 'self-talk'와 같은 기법의 사용을 통해 자신들의 분노, 스트레스,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내구타 감소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재엽, 1995).

더불어 아내구타의 예방적 차원에서 스트레스 관리 기법과 bio-feedback 기술, 긴장완화훈련과 같은 행동적 개입방법 등을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회사, 지역사회 모임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빈곤가구의 부부 간에 생기는 갈등이나 폭력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나라들은 그 나라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빈곤가구 대상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빈곤가구에서 발생하는 부부갈등이나 폭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도 향후 빈곤가구의 부부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우리 문화와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빈곤가구의 부부폭력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다양한 학문에서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재엽(1995). 가정폭력의 실태와 임상개입에 관한 연구: 재미한인가정을 중심으로, 연세 사회복지연구, 제2권, 86-105.
- 2) 김재엽(1996).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개입방안 연구 -임상치료프로그램 및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동광, 통권 제93호.
- 3) 김재엽(1997). 한국인의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과 아동복지', 제8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아동복지학회, 93-134.
- 4) 김재엽(1998). 한국노인부부의 부부폭력실태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 노년학회, 제18권 1호.
- 5) 김정옥(1995). 가족스트레스, 가족체계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1).
-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7) Blood, Robert O., and Donald M. Wolfe(1960). Husbands and Wives, Glencoe, IL:Free Press.
- 8) Dibble & Straus(1980). Some Social Structure Determinants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 Transaction.
- 9) Farrington, Keith.(1980). Stress and Family violence, edited by M. A. Straus and G. T. Hotaling,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10) Fojtik K. M.(1978). Now domestic violence project,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No.2, 653-657.
- 11) Gelles, R. J.(1980). Violence in the Family: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873-885.
- 12) Gelles, R. J.(1983). An Exchange/Social Control Theory. In the Dark Side of Families: Current Family Research, Edited by Finkelhor et al. Newbury Park, CA: Sage Pub.
- 13) Gelles, R. J.(1989).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 14) Holmes TH, Rahe R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15) Kantor, G.K., & Straus, M.A(1992). The Drunken Bum Theory of Wife Beating,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
- 16) Kim, J. Y.(1993). Family Violences in Korean American Familie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 17) Murray A. Straus(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February.
- 18) Murray A. Straus(1980). The marriage License As a Hitting License:Evidence from Popular Culture, Law and Social Science, Chapter 3 in the Social Causes of Husband-Wife Violence, Edited by Straus and Hotaling,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19) Murray A. Straus & Richard J. Gelles(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New Jersey.
- 20) O'Leary, K. D., and Ileana Arias(1988). Assessing Agreement of Reports of Spouse Abuse, Newbury Park, CA:Sage.
- 21) Pagelow, M.D.(1981). Woman Battering : Victims and their Experiences, Beverly Hills, CA:Sage.
- 22) Parke, R. D., and C. W. Collmer(1975). Child Abuse: An Interdisciplinary Analysis, 509-590 in th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5, edited by E.M.Hetherington, Chicago:Univ. of Chicago Press.
- 23) Rosenbaum A, and K.D. O'Leary(1981). Marital violence: Characteristics of abusive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No.4, 63-71.
- 24) Steinmetz, Suzanne K.(1977). The Cycle of Violence: Assertive, Aggressive, and Abusive Interaction, N.Y.: Praeger.
- 25) Sutor, J. Jill, and Karl Pillemer.(1987). The Presence of Adult Children: A Source of Stress for Elderly Couples'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17-725.
- 26) Walby, S.(1990). Theorizing Patriarchy, Basil Blackwood Inc., Cambridge, MA.